

청소년지표 1991*

- 미국 청소년복지의 추세(하) -

천 정 응**

- I. 개 관
- II. 청소년지표
1. 인구와 가족구성
 2. 가족소득
 3. 교 육
 4. 고용과 재정
 5. 보건, 행태 및 태도
- III. 용어 해설

변화가 별로 없었으며 18세~21세의 취학율은 1980년과 1989년 사이 증가하였다(<표 6>).

〈표 6〉 14~29세의 연령별 취학율 (1960~1989)
(단위: %)

연 도	14~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25~29세
1960	90.3	38.4	19.4	8.7	4.9
1965	93.2	46.3	27.6	13.2	6.1
1970	94.1	47.7	31.9	14.9	7.5
1975	93.6	46.9	31.2	16.2	10.1
1980	93.4	46.4	31.0	15.3	9.3
1985	94.9	51.6	35.3	16.9	9.2
1989	95.7	56.0	38.5	19.9	9.3

II. 청소년지표

3. 교 육(Education)

1) 취학율

1950년에서 1970년까지 14세~19세 10대들의 취학율은 높게 나타났다. 1970년 이래, 취학율은

* 이 자료는 미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Youth Indicators 1991-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Washington, D. C.: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1) pp.1~148의 주요부분을 발췌·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지표 1991」은 주로 14~24세 청소년들의 생활과 경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지표화하여 인구통계와 가족구성, 가족 소득, 교육, 고용과 재정, 보건, 행태 및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5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별로는 1950년부터 1991년의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구체적 물량과 빈도, 백분율 등이 표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세에 따른 특징을 요약·제시하는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여기서는 지난호에 이어 청소년지표 중 교육, 고용과 재정, 보건·행태 및 태도 관련 지표와 용어해설 부분을 재재한다.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제비교적인 것은 일부 원문상의 각종 도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2) 학생의 인종구성

1960년과 1989년 사이의 백인학생 비율은 초·중등 및 대학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1980년 이래, 히스패닉계 학생의 비율은 각 학교급에서 증가하였다.

3) 학교졸업률

지난 수십년간 청소년들의 교육연수가 증가하였으나 1975년 이래 교육 수준은 많이 향상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흑인의 비율은 최근에 많이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5세~29세 흑인의 비율은 1975년 29%에서 1988년 19%로 떨어졌다.

4) 중퇴자 비율

16세~24세 중퇴자 비율은 1980년과 1989년 사이 약간 떨어졌다. 중퇴율의 감소는 특히 흑인들이 두드러진다. 히스패닉계인들은 흑인이나 백인보다 1989년에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히스패닉계의 중퇴율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표 7>).

<표 7> 16~24세 고교 중퇴자의 성별
인종/민족별 비율 (1970~1989)
(단위: %)

연도	전체	성 별		인종 / 민족별		
		남	여	백인	흑인	히스패닉
1970	15.0	14.2	15.7	13.2	27.9	-
1975	13.9	13.3	14.5	12.6	22.8	29.2
1980	14.1	15.1	13.1	13.3	19.3	35.2
1983	13.7	14.9	12.5	12.9	18.1	31.5
1985	12.6	13.4	11.8	12.2	15.7	27.6
1987	12.7	13.3	12.2	12.5	14.5	28.6
1989	12.6	13.6	11.7	12.4	13.8	33.0

주: 백인에는 히스패닉계 백인 포함.

5) 학생/교사 비율과 학생 1인당 소요비용

1955년과 1989년사이 학생/교사 구성비는 1980년대에 다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되었다. 부분적으로는 1985년 이후 교사와 학생이 많아진 결과 더 많은 재정자원이 공립 초·중등학교에 충당되었다. 1980~1981년 및 1990~1991년 사이 학생 1인당 소요비용(인플레이션조정)은 36% 증가했다.

6) 학생의 컴퓨터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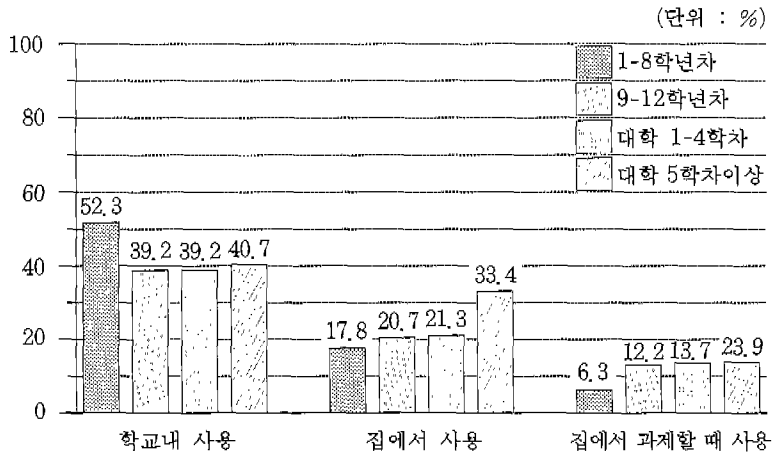
1989년, 전체 국민학교 아동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 컴퓨터 사용률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39%였다. 비록 실제로 공부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수는 적지만 학생들의 상당수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학교 아동의 약 18%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약 6%는 공부하는데 사용했다.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컴퓨터 사용률은 낮을 것 같은데도 국민학교 아동의 두 배정도가 공부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보다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더 많으며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최근의 이러한 양상은 특히 국민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졌다([그림 4]).

7) 독해력 수준

9세, 13세, 17세 학생의 독해력 수준은 1979~1980년과 1987년~1988년사이 개선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백인,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9세 가운데 중간정도의 독해수준을 갖고 있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9세 중 기초적인 독해력 수준의 비율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백인의 경우는 감소했다. 흑인 13세

[그림 4]

학교/집에서의 컴퓨터 사용율 (1989. 10월)



는 독해력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흑인 17세도 자신들의 독해력 수준을 많이 향상하였다. 기초수준과 중간정도의 독해력을 갖고 있는 17세의 비율은 다소 올라갔다.

8) 작문수준

평균적으로 보아 미국학생들은 작문을 잘하지 못하지만 최근에도 작문수준은 향상되지 않았다. 작문력은 학년수준에 따라 나아지지만 11학년은 1988년 400점 만점 중에서 221점을 기록했다. 1984년과 1989년 사이 작문점수는 4학년과 11학년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8학년은 다소 낮아졌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11학년의 평균은 백인 8학년보다 더 낮다. 전 학년에서 모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9) 사회, 지리, 역사 및 문학

1988년에 과제가 있었던(homework assignments) 상급생의 경우 과제가 없었던 학생들보다 역사, 사회, 및 지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상급생 중에서는 TV를 보는 시간이

적을수록 역사, 사회 및 지리점수는 더 높다.

10) 수학·과학 국제 비교

미국학생의 수학과 과학실력은 다른 국가 학생들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 아니다. 1988년에 12개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 13세 학생의 수학성적은 최하위 2개국에, 과학은 최하위 4개국에 속하는 점수를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국가/주 가운데 한국학생들은 수학에서 최고 득점을 하였으며 과학에서는 (캐나다)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한국학생들이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8〉).

11) 국제과학테스트 점수

선진국과 개도국의 여러 학생들이 참가한 국제 과학 테스트에서 미국학생은 보통 성적을 기록했다. 미국학생들은 10세가 중간 정도의 성적을, 14세의 경우 하위권 성적을, 18세들은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비록 미국 18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만 그 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수준급의 과학반

〈표 8〉 13세의 국제 수학/과학 평가성적 : 국가/주 별 비교 (1988)

(단위 : %)

국가/주	수 학			과 학		
	평 균	400점 이상	500점 이상	평 균	400점 이상	500점 이상
브리티시콜럼비아주(캐)	539.8	95	69	551.3	95	72
아 일 랜 드	504.3	86	55	469.3	76	37
한 국	567.9	95	78	549.9	93	73
뉴 브 룬 스 유 주(캐)	529.0	95	65	510.5	90	55
온 타 리 오 주(캐)	516.1	92	58	514.7	91	56
퀘 벡 주(캐)	535.8	97	67	515.3	92	57
스 페 인	511.7	91	57	503.9	88	53
영 국	509.9	87	55	519.5	89	59
미 국	473.9	78	40	478.5	78	42

에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2) 청소년의 문해(文解)

21세에서 25세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기초적으로 읽고 쓸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200점 이상) 정도의 일은 적절하게 수행하는 반면, 약 45%는 수표장 대차계산이나 지도를 사용하는 중간정도 (300점 이상) 난이도의 일은 잘할 수 없다. 심지어 대학졸업자 중에서도 일부는(15%) 중간정도 난이도의 일을 할 수 없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의 문자해독 수준은 백인들보다 뒤쳐진다.

13) 대학수학능력시험 SAT/ACT 점수

1963~1964 및 1980~1981년 사이 대학수학능력시험 SAT점수는 특히 언어부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에 변화했으며, 일부 낮아진 점수는 1980년대 초에 회복되었다. 1985년 이래 점수상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ACT 점수도 1970년대 초에 낮아졌으며 그 이후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14) 과제와 TV 시청

미국 학생들은 1988년의 한 연구에 참가한 대다수의 다른 12개 국가와 캐나다 주의 학생들보다 TV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미국 학생들이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은 그들의 수학 및 과학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일부 국가의 학생들의 과제량이 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과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테스트 실력 간에는 큰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1988년 상급생의 약과반수가 하루에 3시간 이상 TV를 보았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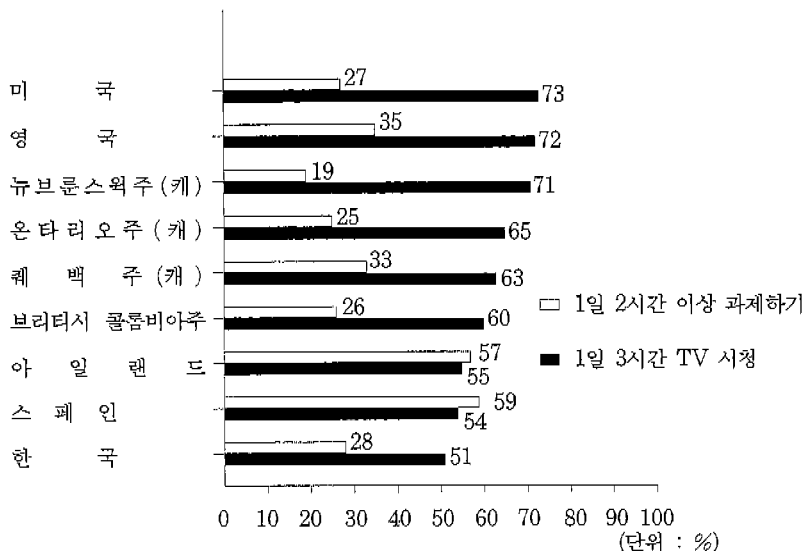
4. 고용과 재정(Employment and Finances)

1) 청소년의 고용

노동력중에서 16~24세 남성의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있다. 대조적으

[그림 5]

국가/주 별 과제와 TV (13세, 1988)



로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1970년과 1989년 사이, 20~24세 여성의 노동력 비율은 58%에서 72%로 높아졌다(〈표 9〉).

2) 16~17세 학생의 취업

16~17세 남학생의 취업율은 1970년에서 198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취업율은 전체여성의 경향을 반영하면서 1970년대 초반보다 1989년에 더 높았다. 1989년에 남성의 36%와 비교하여 여성의 39%가 취업하였다. 이들 학생의 거의 대부분은 시간제 취업이었다.

3) 청소년의 실업

흑인 10대들은 백인보다 훨씬 더 실업율이 높다. 백인 10대 남성들의 1989년 실업율은 약 14%였으나 흑인들은 32%였다. 연령이 많은 흑인 남자청소년의 실업율은 계속 높게 나타났다. 백인의 8%

와 히스패닉계의 10%와 비교하여 흑인 20~24세의 약 18%가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교졸업자의 취업

1965년과 1989년사이 고교졸업자의 노동력참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1970년에 외전상 일시 내려간 것은 민간 노동력보다는 남성들의 군입대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대조적으로 노동력에 포함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구성비 또한 1965년 28%에서 1989년 45%로 올라갔다. 1982년 이래, 고교생들의 대한진학비율은 높아졌다.

5) 중퇴자의 취업

고교 중퇴자들의 취업전망은 별로 밝지않다. 1989년 10월 당시 이전 12개월 동안의 중퇴자 중 단지 약 1/2만이 고용되었다. 일부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실업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그림 6]).

<표 9>

16세 이상의 성별 연령별 노동참가율(1960~1989)

(단위 : %)

연 도	남				여			
	16세이상	16~19세	20~24세	25~34세	16세이상	16~19세	20~24세	25~34세
1960	83.3 (5.4)	56.1 (15.3)	88.1 (8.9)	97.5 (4.8)	37.7 (5.9)	39.3 (13.9)	46.1 (8.3)	36.0 (6.3)
1970	79.7 (4.4)	56.1 (15.0)	83.3 (8.4)	96.4 (3.4)	43.3 (5.9)	44.0 (15.6)	57.7 (7.9)	45.0 (5.7)
1980	77.4 (6.9)	60.5 (18.2)	85.9 (12.5)	95.2 (6.7)	51.5 (7.4)	52.9 (17.2)	68.9 (10.3)	65.5 (7.2)
1985	76.3 (7.0)	56.8 (19.5)	85.0 (11.4)	94.7 (6.6)	54.5 (7.4)	52.1 (17.6)	71.8 (10.7)	70.9 (7.4)
1989	76.4 (5.2)	57.9 (15.9)	85.3 (8.8)	94.4 (4.8)	57.4 (5.4)	53.9 (14.0)	72.4 (8.3)	73.5 (5.6)

주 : 1. 민간노동력은 전체취업자와 취업희망자를 포함한다.

군복무자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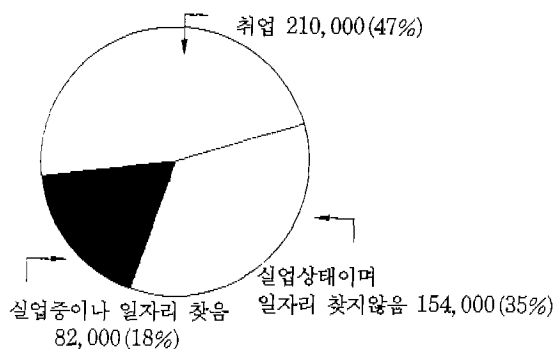
2. 노동참가율은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3. 실업율은 실업상태에 있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노동력의 구성비임.

* ()는 실업율

[그림 6] 1988~89년 16~24세 중퇴자의
취업상태

(단위 : 명, %)



* 1988.10~1989.10사이 중퇴자총수=446,000

6) 소득(중양값)

20~24세의 전일제 근로자들의 소득(중양값)

은 1970년과 1987년(인플레이션 감안) 내려갔다. 이 기간 동안, 20~24세 여성의 소득은 남자보다 감소하는 속도가 더 늦다. 남성의 소득과 여성의 소득 차이는 3%로 줄어들었다. 청소년들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체 남성의 소득 중양값은 1970~1987년 기간 동안 여전히 안정적 상태이며 전체여성의 소득은 10% 증가하였다.

7) 고교생의 소비형태

1990년에 일하는 고교상급생의 40%가 자기 수입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의복, 레코드 및 레크리에이션 같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흑인들은 소득중에서 가족 소요경비(family expenses)에 쓰는 비율이 백인보다 더 많다.

4년제 대학 진학을 계획하는 자는 다른 상급생보다 자신의 교육을 위해 더 많이 저축하는 것 같다.

8) 청소년의 소비 지출

1989년, 25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도시소비자 유닛 units은 거의 모든 범주에서 평균 소비자 유닛보다 소비지출이 더 적다. 하나의 예외는 청소년이 가장인 소비자 유닛이 교육에 대한 소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이다(〈표 10〉).

9) 자녀의 주거여건

주택비용이 1975년과 1987년사이 소득증가보다 더 급격하게 올랐다. 주택비용 부담의 증가는 특히 자녀를 가진 세입자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 앞의 지표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의 수적증가는

전형적으로 부부가족보다 훨씬 더 소득이 적은 여성가장 세대female-headed households들에게 문제가 된다. 1987년에는 자녀를 가진 세입자의 약 24%가 적어도 소득의 과반수를 주택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자녀를 가진 주택소유자들 가운데는 단지 약 4%만이 자기 소득수입의 과반수 이상을 주택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자녀를 가진 가족은 주택소유자보다 세입자들의 경우가 더 많이 증가했다. 자녀를 가진 주택소유자의 수는 1975년과 1987년사이 단지 1%만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자녀를 가진 세입자의 수는 26% 증가되었으며 자녀를 가진 저소득 세입자의 수는 44%로 높아졌다.

〈표 10〉 가장의 연령별 도시소비자 유닛 연 평균지출 : 1984, 1987 및 1989

(단위 : \$, %)

지출별	1989 소비자유닛당 연간지출액		지출비율					
			전체			25세이하		
	전체	25세이하	1984	1987	1989	1984	1987	1989
연간총지출	26,716	16,0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품	4,248	2,573	15.0	15.0	15.9	15.5	15.3	16.0
알콜성음료	256	319	1.3	1.2	1.0	2.0	2.2	2.0
주택	8,116	4,634	30.4	31.0	30.4	27.9	30.0	28.8
의복및서비스	1,332	949	6.0	5.9	5.0	7.0	6.2	5.9
교통비	5,148	4,020	19.6	18.8	19.3	24.6	23.7	25.0
보건비	1,316	324	4.8	4.6	4.9	2.8	2.4	2.0
접대비	1,348	841	4.8	4.9	5.0	4.9	5.2	5.2
개인용도	244	136	1.3	1.4	0.9	1.2	1.2	0.8
독서	156	79	0.6	0.6	0.6	0.5	0.5	0.5
교육	338	650	1.4	1.4	1.3	4.2	4.3	4.0
담배등	259	204	1.0	1.0	1.0	1.2	1.1	1.3
세탁비	582	242	2.1	2.3	2.2	1.8	1.7	1.5
기부금	900	120	3.2	3.0	3.4	0.8	0.5	0.7
개인보험및연금	2,472	1,006	8.6	8.9	9.3	5.8	5.8	6.2

- 주 : 1. 소비자 유닛 : 1) 혈연이나 법적관계로 연결되는 특정가족의 모든 구성원
 2) 독신이나 타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3) 지출 결정을 함께 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 모든 유닛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989년, 소비자 유닛의 총수는 95,818,000이었으며 25세이하 준거인 reference persons을 가진 소비자 유닛이 7,633,000 있었다.
 2. “25세이하”는 준거인의 연령,

5. 보건, 행태 및 태도(Health, Behavior, and Attitudes)

2) 스포츠 참가

1) 체 령

연령별로는 10~17세들이 1989년의 경우 1980년 보다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부문에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래달리기의 경우는 소년과 소녀 모두 다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스포츠활동의 참가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2~17세와 비교하여 18~24세들은 조직적인 집단형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 적은 경향이지만, 에어로빅, 달리기 또는 장비를 갖고 하는 운동에는 더 많이 참가하는 것 같다(<표 11>).

<표 11>

연령별 스포츠활동 참가비율(1986~1988)

(단위 : %)

활 동	1986			1988		
	7세이상	12~17세	18~24세	7세이상	12~17세	18~24세
에 어 로 빅*	10.2	11.5	16.4	11.2	9.5	18.3
야 구	6.5	23.8	9.4	6.2	21.2	8.2
농 구	9.9	35.4	16.8	10.7	36.8	18.3
자 전 거 타 기*	23.1	47.5	23.9	24.8	45.4	27.3
미 용 체 조*	6.7	14.1	8.8	6.3	10.4	9.6
캠 핑	19.2	26.0	20.9	19.5	27.5	21.6
건 기*	24.9	13.4	22.4	28.7	15.4	9.1
민 물 낚 시	19.0	24.2	20.7	18.3	22.3	13.4
바 다 낚 시	5.7	5.8	5.5	6.0	6.2	8.1
미 식 축 구	5.6	23.4	10.8	5.7	22.5	12.4
골 프	9.3	8.8	11.8	10.5	9.2	10.3
하 이 킹	7.9	10.7	9.9	9.2	10.5	10.4
사 냥	9.6	12.4	13.4	7.9	8.5	10.4
조 강*	10.8	23.2	18.8	10.6	20.4	24.3
알 파 인 스 키	4.5	9.0	9.8	5.7	10.2	11.0
크로스칸추리스키	2.2	2.9	1.9	2.7	3.2	1.9
축 구	3.8	16.3	2.9	4.0	16.8	3.2
소 프 트 볼	9.7	22.1	15.9	9.5	21.3	16.2
수 영*	33.8	56.0	41.8	32.8	55.1	41.2
테 니 스	8.4	19.1	16.9	8.0	15.5	15.3
배 구	9.7	24.5	18.5	10.1	25.5	17.2

* 는 적어도 1년에 6회이상 활동한 참가자

3) 질 병

1950년 이래, 청소년들은 소아마비와 홍역을 앓은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임질은 1965년과 1975년 사이 많이 증가했으나 1980년이래 감소되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 보고된 사례수는 1985년과 1989년 사이 4배이상 되었다.

4) 임신, 유산 및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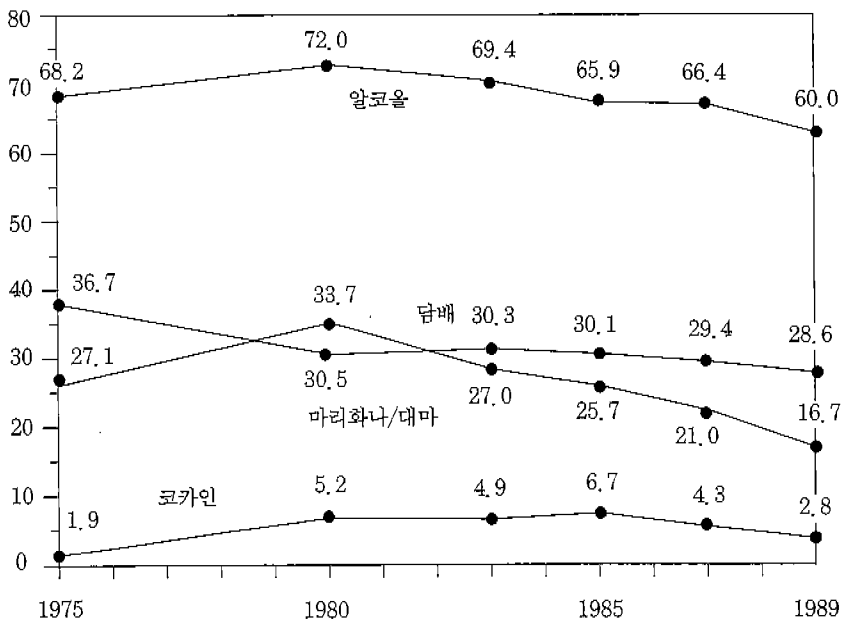
10대(15~19세) 임신율은 1970년대에 급속하게 증가된 이후, 1980년과 1985년사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임신 5명 중 약 2명은 결국 중절하게 된다. 10대들의 임신율과 출산율은 1980년과 1985년사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5) 담배, 알콜 및 약물복용

약물을 불법 복용한 고교생 비율은 1975년에서 1980년까지 증가되었으나 1980년과 1989년 사이에는 65%에서 51%로 감소되었다. 지난 30일 동안 약물을 복용한 고교생 비율은 1980년 37%에서 1989년 20%로 대폭 감소되었다. 지난 30일만에 알콜을 사용한 비율은 1980년 72%에서 1989년 60%로 감소한 반면 학생들의 담배사용은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코카인 사용은 1980년대 초반에는 높아졌지만 1985년과 1989년 사이에는 감소하였다. 마리화나/대마는 1989년 고교상급생의 17%가 지난 30일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다른 것과는 사용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불법 약물이 되고 있다([그림 7]).

[그림 7] 고교상급생들의 지난 30일간 담배, 알콜 및 약물복용 경험(1975~1989)

(단위 : %)



6) 사망률

15~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1970년 이래로 감소되고 있다. 남성들의 사망률이 매년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50~1989년 사이 여성사망률의 감소는 남성보다 훨씬 더 크다. 흑인 사망률은 백인 특히 남성들간에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 사망원인

1988년에 15세~19세 10대의 5대 사망원인은 자동차사고, 자살, 피살, 기타 사고 및 암이었다. 모든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1980년에서 1988년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살인에 의한 사망률과 자살률은 증가되었다. 20~24세의 사망률은 나이 든 연령집단에서의 높은 자살률과 살인율을 반영하면서 15세~19세보다 더 높다.

8) 투표율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하는 청소년 비율은 낮으며 감소하고 있다. 1988년에는 25세 이상

은 61%가 투표했으나 18~24세는 약 36%가 투표했다.

더욱이, 청소년의 투표율은 성인보다 더 급속히 떨어졌다. 1988년에는 흑인청소년의 투표율은 백인청소년과 거의 같았으나, 히스패닉계 청소년 유권자는 단지 17%만이 투표했다.

9) 고교 상급생의 레저활동

1990년 고교상급생(남녀공통)의 가장 보편적인 일상 레저활동은 TV시청이었다. 매일 독서를 하는 고교상급생의 수는 전체의 1/2도 못 된다. 1976년과 1990년사이 상급생의 활동 형태는 집, 또는 차에서 독서하거나 일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표 12〉).

10) 종교

매주 종교활동services에 참가하는 고교상급생 비율은 1976년과 1980년사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43%에서 1990년 3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어느 정도 종교가 자신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

〈표 12〉

활동유형별 고교상급생의 일상 레저활동

(단위: %)

활동유형	1976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TV 시청	71	72	73	72	74	71	73	71	72
책·잡지·신문읽기	59	59	53	51	50	48	46	47	47
친구와 함께	52	51	48	47	49	47	50	51	49
스포츠 참가	44	47	44	43	44	44	44	44	46
혼자서 1시간이상 레저	40	42	44	42	42	43	42	42	41
집주변에서 일하기	41	40	41	35	34	33	32	29	28
자동차 드라이브	-	33	34	35	36	36	37	36	34
악기다루기·노래하기	28	29	30	29	27	28	27	27	28
예술·공예작업	12	13	12	11	14	14	13	13	15
창작 글쓰기	6	5	6	6	7	6	6	6	7

하거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비율은 1980년 65%에서 1990년 56%로 낮아졌다.

11) 자원봉사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낮다. 1988~1989년에는 35~44세의 29%와 비교하여 16~19세는 약 13%가 20~24세는 11%가 자원봉사를 하였다. 자원봉사하는 주의 기간Week도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적다(〈표 13〉).

12) 범죄 희생율

12세~15세나 20세이상의 사람들 보다 16~19세들이 폭력범죄에 더 많이 희생되었다. 1988

년에는 16~19세의 약 7%가 희생된 반면, 20세 이상의 경우 단 2%가 희생되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특히 16~19세 연령집단에서 훨씬 더 많은 범죄 희생율을 보이고 있다.

13) 검거율

청소년들의 검거율은 20~30년 이전보다 1988년에 훨씬 더 높았다. 1950년에는 18~24세 1,000명당 13명이 검거되었다. 1988년 그 비율은 1,000명당 117명으로 높아졌다. 검거율은 대부분 1950년과 1980년사이 증가되었다([그림 8]).

14) 범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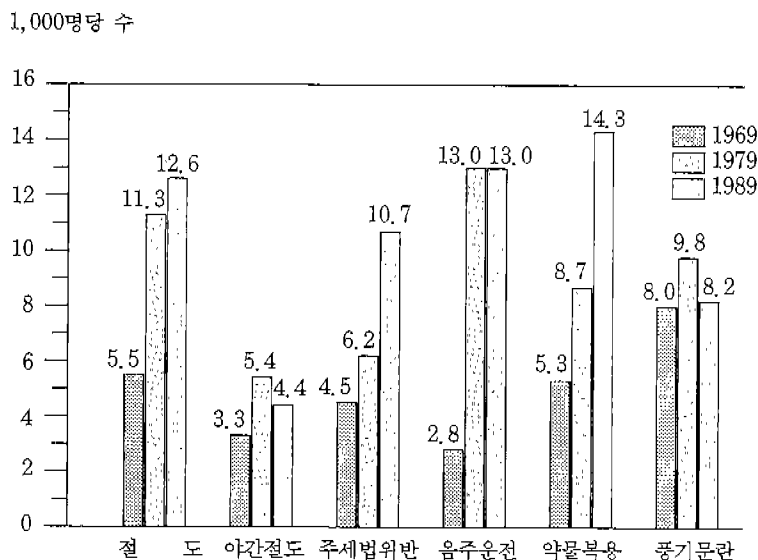
1989년에는 중범죄로 검거된 사람들의 약 56%가 25세 이하였다. 18~24세 청소년 1,000명

〈표 13〉 연령별 학교 및 기타 단체 자원봉사자(1989년 말 현재)

(단위 : %)

단 체 유 형	전 체 연 령				
	16세 이상	16~19	20~24	25~34	35~44
전 체	참 가 자 수 (천명)				
	38,042	1,902	2,064	8,680	10,337
인 구 비 율					
전 체	20%	13%	11%	20%	29%
학교, 기타 교육기관	3%	4%	2%	4%	6%
교회, 기타 종교기관	8%	5%	3%	7%	10%
시민·정치단체	3%	1%	1%	3%	4%
병원·기타 보건단체	2%	1%	1%	2%	2%
사회단체, 복지기관	2%	1%	1%	2%	2%
스포츠·레크레이션 단체	2%	1%	1%	2%	3%
기타 단체	1%	1%	1%	1%	2%
자 원 봉 사 참 가 량					
전년도 연간 봉사 주일 (중간값)	25.2주	13.0주	12.1주	16.9주	26.0주
주당 봉사시간 (중간값)	4.3시간	4.1시간	4.6시간	4.3시간	4.2시간

[그림 8] 범죄유형별 18세~24세 1,000명당 검거자 수(1969, 1979 및 1989)



당 검거자 수는 1969년과 1989년사이 2배이상 되었다. 특히 음주운전, 약물복용 및 절도죄로 체포된 것은 크게 증가했다.

15) 부모의 견해와 비교한 의식태도

1990년 고교 상급생들은 10가지 중요 토픽 중에서 7가지에 관해서는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은 1975년의 비교가능한 연구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가장 많이 동의한 영역은 교육에 관한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 상급생들과 부모들의 동의 정도가 낮은 영역은 돈을 쓰는 방법, 정치, 환경문제 및 데이트에서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것이었다.

1975년과 1990년 사이 3가지 영역에서 상당히 큰 변화shifts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역할과 인종적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가 증가했으며 돈을 쓰는 방법에 관한 동의 정도는 낮아졌다.

16) 인생에 대한 가치(의식)

1972년과 1982년 및 그 4년후에 조사된 결과에서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남·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보다 1980년대에 많은 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정된 일을 갖는 것과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는 1980년대에 남·여 모두 그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 비율은 1976년에서 1986년까지 높아졌다(<표 14>).

III. 용어해설

1. 용어 설명(Glossary)

○ 부양아동 가족보조금(AFDC : Aid to Fam-

〈표 14〉 1972년과 1982년 및 그 4년후 고교상급생의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인생가치에 대한 성별 비율 : 1972~1976 과 1982~1986

(단위 : %)

가	치	1972년 고교생				1982년 고교생			
		1972		1976		1982		198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의 성공		86.5	83.0	80.3	89.7	88.2	85.5	84.0	77.2
안정된 일		82.3	73.7	79.3	62.1	88.0	84.4	84.2	76.3
많은 돈		26.0	9.8	17.7	9.4	41.3	24.1	27.8	16.9
지역사회 지도자		14.9	8.0	9.2	4.2	11.3	5.9	9.5	4.5
불평등 해소		22.5	31.1	16.2	17.1	11.8	11.7	10.7	10.9
자녀 갖기		-	-	-	-	37.0	47.0	41.4	56.2
행복한 가정생활		78.6	85.7	84.2	86.4	81.6	86.3	86.8	87.8
자녀를 위해 더 좋은 기회제공		66.6	66.2	59.8	58.8	71.0	68.7	68.4	67.4
부모 또는 친척과 가까이 살기		6.8	8.2	7.7	11.9	15.0	15.7	12.9	19.8
지방에서 이주하기		14.3	14.6	6.7	6.4	14.4	12.8	9.0	7.4
돈독한 우정		81.2	78.7	76.1	72.1	80.4	79.1	76.5	75.0
여가시간 갖기		-	-	65.4	60.1	70.2	68.8	70.1	68.9

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은 (부모의) 사망, 기능장애, 계속적인 부재 또는 실업 등으로 부모의 부양지원 parental support을 받을 수 없는 부양아동의 저소득가정 family에 대한 현금 원조 cash support를 제공한다.

○ 평균 출석일(ADA : Average daily attendance)이란 학교에서의 수업일수 기간(보통은 한 학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는 총합계를 말한다. 단,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날만 수업일수로 간주된다.

○ 민간 노동력 Civilian labor force은 취업 또는 실업으로 분류된 전체 민간인의 총계이다. 미국 및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들은 모두 “노동력”에 포함된다.

○ 불변 달러 Constant dollars는 팽창 요인을 제거하고 모든 연도를 직접 비교하게 하는 가격

과 비용 지표에 의해 조정되는 달러 총액. 이 책에서는 2가지 방법 즉 1) 역년(曆年)과 2) 학년(學年)에 따라 표현된다.

○ 소비자 유닛 Consumer unit은 1)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 연결되는 특정 가정의 모든 구성원 2) 독신이나 타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3) 지출결정을 함께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다. 모든 유닛 Units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경상통화 달러 Current dollars는 통화팽창 inflation을 보상하기 위해 조정되지 않는 달러 총액이다.

○ 경상지출 Current expenditures : (1차/2차)은 자본지출과 학교부채 이자를 제외한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따른 소비지출이다. 이러한 소비지출에는 학교직원의 급여, 고정자산, 학생통학비,

학교 도서와 기자재 및 에너지 비용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1980~1981년에 시작된 주 행정관리에 따른 지출비용은 제외된다.

○ **중퇴자Dropouts**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고등학교 상당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졸업자로 간주된다.

○ **고용Employment**에는 일정 조사기간 사이의 유급 노동이나, 자기사업, 자영 전문직종,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소유업에서의 15시간 이상의 무급노동 또는 2)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질병, 악천후, 휴가, 노동관리상 분쟁 또는 개인적 이유로 인한 일시적 결근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추정임신율Estimated pregnancy rate**은 출산에 임신중절과 유산을 더한 총계이다. 유산은 임신중절 10%를 합쳐 전체출산의 20%로 추정된다.

○ **가족Family**은 출생, 결혼 또는 입양과 동거에 의해 인척이 되는 2인 이상(그 중 1인은 세대주이다: 아래 참조)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들은(인척이 되는 하위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가족원으로 간주된다.

○ **가족세대Family household**는 가족(위에서 정의된)에 의해 유지되는 세대며 함께 거주할 수도 있는 인척이 아닌 자(인척이 아닌 하위가족의 구성원, 여타 개개인 또는 양자 모두)이다. 가족 세대의 수는 가족의 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족 세대 구성원에는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반면, 가족원은 단지 세대주와 그 친척(가족의 개념정의 참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가족세대 구성원의 수는 가족원의 수와는 다르다.

○ **세대Household**는 주거단위housing unit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일반)

주택, 아파트 또는 여러 방 및 독방은 별개의 생활 거처(숙소)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되어 있을 시 즉, 거주자가 다른 사람과 그 건물내에서 함께 실제 생활하지 않고 외부나 공동의 현관을 통해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 주거단위로 간주된다.

○ **하나의 세대A household**에는 친척인 가족원과 주거단위를 함께 사용하는 하숙인, 양자녀, 후견인wards 또는 고용인 등 친척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주거단위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자나 파트너로 주거단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친척이 아닌 사람들도 세대로 포함된다. 그러나 집단숙소는 세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세대주Householder**는 자기이름으로 그 주거단위를 소유하거나 임대(보유)하는 자(또는 그중의 한 사람), 또는 만일 그런사람이 없다면 세든 사람, 기숙인, 또는 유급고용인을 제외한 다른 성인 구성원을 말한다.

만약 그 집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다면 세대주는 남편 또는 부인 중의 한 사람이 된다. 1980년 이전에는 부부세대에는 남편이 항상 세대주로 여겨져왔다. 세대주의 수는 세대의 수와 같다. 또한 가족세대주의 수는 가족의 수와 동일하다.

○ **노동력Labor force**은 조사주간 동안에 민간인과 군인으로 고용된 자 뿐만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한다. “민간노동력”은 고용 또는 비고용으로 분류되는 모든 민간인들을 포함한다.

○ **노동력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노동력에 포함되는 ‘시설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 noninstitutional population 비율을 나타낸다. 민간 노동력참가율은 민간노동력과 시설의 인구비율이다. 참가율은 항상 성별/연령 집단으로 발표되고 종종 인종과 교육수준 등의 다른 인구

통계적 특징으로 교차분류된다.

○ **부부***Married couple*는 조사목적상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열거하되 남편과 부인으로 정의된다. “세대” “가족” 또는 “하위가족”이란 용어 앞에 붙는 “부부”란 표현은 남편과 아내에 의해 유지되는 세대, 가족 또는 하위가족을 나타낸다. 부부의 수는 부부가족의 수에다 친척과 친척이 아닌 부부 하위가족의 수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

○ **중앙값***Median*은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할 때 가운데를 점유하는 값을 말한다. 이는 대개 그 값의 상하의 항목 수가 동일하다. 만약 수집단이 짝수개의 항목이 있다면 중앙값은 가운데의 두개 항목의 평균값으로 나타난다.

○ **무가족세대주***Nonfamily householder*는 독신 또는 친척이 없이 홀로 세대를 유지하는 자이며 ‘시설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noninstitutional population*이란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를 위한 가정, 학교, 병원 또는 수용실; 정신병자, 결핵환자 또는 만성질환환자를 위한 병원 또는 수용실; 미혼모를 위한 집; 노령 부양자를 위한 사설요양원 *nursing home* 회복기환자 요양소 *convalescent* 또는 일반 요양소 *rest home*; 고아원; 또는 교정시설과 같은 시설의 수용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다.

○ **친자녀***own children*는 의붓자녀와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인 가족원 또는 세대주이다. 하위가족에서의 친자녀는 부부 또는 하위가족 부모의 자녀이다.

○ **인종/민족***Racial/ethnic Group*은 인구조사국 *Bureau of the Census*이 수집한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은 자기일체감 *Self-identification*에 따른 인종적이거나 종족적 혈통을 나타내는 분류이다. (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및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의 두집단은 이 책에는 제시되지 않음, 이들 집단에 대한 개별자료를 입수할 수 없

기 때문임).

— 백인은 유럽, 북아프리카 또는 중동의 원주민계 혈통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보통 인구조사국에서 작성한 도표에 없는 히스패닉계 사람은 제외한다. 이 책에서는 주를 달아 밝힌다.

— **흑인***Black*은 아프리카의 흑인집단의 혈통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보통 인구조사국에서 작성한 도표에 없는 히스패닉계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주를 달아 밝힌다.

— **흑인 및 기타 인종***Black and other races*은 스스로를 백인이기 보다는 기타 인종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1970년 인구총조사 시기에는 흑인과 기타 인구집단의 89%가 흑인이었다; 나머지가 미국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및 아시아, 태평양의 섬주민이었다.

— **히스패닉계 또는 스페인계**는 사람들의 혈통이나 가계에 대한 자기일체감 *self-identification*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히스패닉 또는 스페인계의 사람들이다. 특히 히스패닉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멕시코인, 후에르트리코인, 쿠바인, 중남미 또는 여타 다른 히스패닉계통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1970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히스패닉 인구의 약 96%가 백인이다.

○ **실업자***Unemployed person*은 조사주간 동안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지난 4주 이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 및 조사 주간 동안(일시적 질병을 제외) 작업가능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또한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30일 이내 새로운 임금이나 봉급 받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 **실업율***Unemployment rate*은 민간노동력의 빈도(%)로서 실업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 연령별, 결혼생활상 지위, 인종, 직업, 산업별

등에 의해 분류된 노동력을 가진 집단으로 산정될 수 있다.

○ 친척이 아닌 하위가족Subfamily은 상호간 출생, 결혼, 입양에 의해 세대주와는 인척이 되는 2인 이상의 집단이다.

친척이 아닌 하위가족은 숙박인, 세든사람, 기숙인, 또는 숙식하는 고용인 및 한 세대 내에서 살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다. 친척이 아닌 하위가족 구성원의 수는 세대원의 수에 포함되지만 가족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례 대 조

1. 청소년 인구	: Number of Young Adults
2. 청소년 인구 추이	: Population Projections of Young people
3. 결 혼	: Marriage
4. 이 혼	: Divorce
5. 결혼율과 이혼율	: Marriage and Divorce Rates
6. 출 산	: Births
7. 미혼여성의 출산율	: Births to Unmarried Women
8. 미혼여성의 출산율 : 국제비교	: Births to Unmarried Women
9. 자녀가 있는 가족	: Families with Children
10. 편친 가족의 자녀	: Children of Single Parents
11. 청소년의 주거양식	: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Adults
12. 가족소득	: Median Family Income
13. 가계총소득	: Total Family Income
14. 빈 곤	: Poverty
15. 연방가족보조금	: Federal Aid to Family
16. 자녀부양지원	: Child Support
17. 양친의 취업	: Parent' Employment
18. 모친의 취업	: Mothers' Employment
19. 자녀 양육비용	: Cost of Raising a Child
20. 대학 경비	: College Costs
21. 취학을	: School Enrollment
22. 학생의 인종구성	: Race of Students
23. 학교졸업율	: Completion
24. 중퇴자 비율	: Dropouts
25. 학생/교사 비율과 학생 1인당 소요비용	: Pupil/Teacher Ratio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26. 학생의 컴퓨터 사용율	: Computer Use by Students
27. 독해력 수준	: Reading Proficiency

28. 작문수준	: Writing Proficiency
29. 사회, 지리, 역사 및 문학	: Civics, Geography, History, and Literature Proficiency
30. 수학·과학 국제비교	: International Math and Science Comparison
31. 국제과학테스트 점수	: International Science Test Scores
32. 청소년의 문해(文解)	: Literacy of Young Adults
33.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및 ACT 점수	: SAT and ACT Scores
34. 과제와 TV시청	: Homework and Television
35. 청소년의 고용	: Employment of Young Adults
36. 16~17세 학생의 취업	: Employment of 16-and 17-Year-Old Students
37. 청소년의 실업	: Unemployment of Young Adults
38. 고교졸업자의 취업	: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39. 중퇴자의 고용	: Employment of Dropouts
40. 소득(중앙값)	: Median Income
41. 고교생의 소비형태	: Spending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42. 청소년의 소비지출	: Spending of Young Adults
43. 자녀의 주거여건	: Housing Condition of Children
44. 체 령	: Physical Fitness
45. 스포츠 참가	: Sports Participation
46. 질 병	: Illness
47. 임신, 유산 및 출산	: Pregnancy, Abortion, and Births
48. 담배, 알콜 및 약물복용	: Tobacco, Alcohol, and Drug Use
49. 사망율	: Death
50. 사망원인	: Causes of Death
51. 투표율	: Voting
52. 고교 상급생의 활동	: High School Seniors' Activities
53. 종 교	: Religion
54. 자원봉사	: Volunteer Work
55. 범죄 희생율	: Victims of Violent Crime
56. 검거율	: Arrests
57. 범죄유형	: Types of Crime
58. 부모의 견해와 비교한 의식태도	: Attitudes Compared with Parents' Views
59. 인생에 대한 가치(의식)	: Values